



### 전남대병원,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챌린지

전남대학교병원이 아동학대예방과 아동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

1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를 확산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목으로 캠페인 참여해 지난 5일 병원 1동 1층 미디어갤러리 앞에서 정신 병원장을 비롯해 광역새싹지킴이병원 아동보호위원들과 함께 챌린지에 참여했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시 광역새싹지킴이병원으로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심리적 회복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담회

전남도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12일 목포에 위치한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전남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업 소통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 차명신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인용 진흥원장, 목포시 소재 기업대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11개 기업의 대표들은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으며, 전남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도 진행됐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전남 콘텐츠산업을 이끄는 주역"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소중하게 모아 진흥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꼼꼼하게 검토하여 전남 콘텐츠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의회,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업체에 감사패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의회 열린 시민홀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공업체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

수여자는 서울 성동구에 본사를 둔 에브리포터블로, 참사 당시 무안공항에 머물러야 했던 유가족 등을 위해 휴

대폰 보조배터리 대여기 5대를 15일여 간 무상 제공했다.

신수정 시의장은 "이번 사고 현장에 보내준 도움의 손길이 유가족과 시민에게 큰 힘이 됐다"며 "시의회도 피해 유가족과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 광주시, 경제정책협력관에 장은종씨 위촉

광주시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경제정책협력관에 장은종 전 한국은행 본배국민소득반장(한국은행 2급)을 위촉했다. (사진)

장 경제정책협력관은 앞으로 1년 동안 광주시와 한국은행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경제정책방향 공유를 통해 광주시 경제정책과 주요 현안, 경제이슈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장 협력관은 2002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조사국을 거쳐 경제통계국 본배국민소득반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두 차례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통찰력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장 협력관이 시와 한국은행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올해 시정의 핵심 목표인 '더 따뜻한 민생경제' 실현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 남구, 구립·작은도서관서 독서 동아리 육성

광주 남구가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 동아리를 육성한다. (사진)

13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올해 내로 26개의 동아리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구립 문화정보·푸른길·청소년·효천어울림도서관에서 각각 4개씩 총 16개의 동아리를 운영하며, 관내 10곳의 작은도서관에서도 독서문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아리는 오는 3월 초부터 공개 모집하며, 모집 분야는 독서와 문화 두 가지로, 특히 독서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독서 분야에서는 책 읽기, 독서 토론, 책 놀이, 동화 구연, 서평 작성 등의 활동이 진행되며, 문화 분야에서는 공예 및 문학 창작 활동 등이 포함된다. 모집 대상은 독서 및 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윤준명 기자

### 에스파·제니, 美 '빌보드 위민 인 뮤직' 나란히 수상

초신성 걸그룹 '에스파'와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겸 솔로가수 제니(JENNIE)가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빌보드 위민 인 뮤직' (Billboard's Women in Music) 수상자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사진)

12일(현지시간) 빌보드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빌보드 위민 인 뮤직 2025' 수상자 명단에 따르면, 에스파와 제니는 각각 '올해의 그룹' (Group of the Year)과 '글로벌 포스상' (Global Force Award)을 받았다.

빌보드는 에스파에 대해 첫 정규 앨범 '아마겔론'과 이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성과를 꼽았다.

제니에 대해서는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글로벌 영향력을 인정 받았다"고 전했다.

에스파는 최근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공연했는데 일부 수익금을 LA 산불 피해자를 위해 기부하는 등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오는 3월15~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드에서 이 투어 서울 앙코르 콘서트를 연다. 상반기 중 새 앨범을 낸다.



제니는 오는 3월7일 첫 솔로 정규 앨범 '루비(Ruby)'를 발매한다. 선공개 싱글인 '만트라'와 '러브 행오버'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진입하는 등 예열 중이다.

'빌보드 위민 인 뮤직'은 한 해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최고의 여성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프로듀서, 경영진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시상식이다.

앞서 K팝 팀 중에선 2023년 트와이스가 '브레이크스루 아티스트' (Breakthrough Artist) 부문, 작년 뉴진스가 '올해의 그룹'을 받았다. 뉴시스

### '드래곤 길들이기' 6월 개봉... 예고편 공개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가 오는 6월 개봉한다. (포스터)

배급사 유니버설 픽처스는 13일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다.

'드래곤 길들이기'는 바이킹 소년 히킵과 드래곤 투슬리스의 뜨거운 우정과 모험을 다뤘다. 시리즈 3부작에 걸쳐 전 세계 박스오피스 16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둔 동명의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를 실사로 재탄생시켰다.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연출한 디 데블로이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배우 메이슨 테임스가 히킵 역을 맡았고, 제라드 버틀러가 히킵 아버지 스토이크로 분했다. 니코 파커, 닉 프로스트, 줄리안 데니슨 등도 출연한다.

히킵은 바이킹 부족의 족장인 아버지 스토이크에게 어린 시절부터 '드래곤은 우리 세계의 위협'이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던 어느 날 히킵은 우연히 드래곤 투슬리스를 목격하고 포획에 성공한다. 하지만 히킵은 날개를 다친 그를 해치지 못하고 몰래 풀어주며 비밀스



러운 교감을 이어간다. 히킵은 드래곤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려 한다. 그러나 드래곤과 바이킹족의 갈등은 갈수록 격해져만 간다.

전쟁을 앞두고 드래곤을 옹호하는 히킵의 모습에 아버지 스토이크와 사람들은 분노를 터트린다.

히킵은 "미친 짓이라도 해야지"라며 투슬리스와 함께 거대한 모험에 나선다. 뉴시스



### 전남도, 친환경농업 선구자 유기농 명인 지정

전남도는 자신만의 독창적 유기농업 기술로 친환경농업 실천과 발전에 기여한 선구자 3명을 '2024년 전남도 유기농 명인'으로 신규 지정해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축산 분야에서는 광양시 유기농 산양유를 생산하는 권영근씨와 해남에서 유기한우를 운영 중인 김소영씨가 선정됐다. 이들은 유기재배로 생산한 사료를 급여하는 등 축산 관련 인증 가운데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최상위 인증인 유기축산 인증을 각각 2018년, 2017년 획득했다. 채소 분야에는 영광 박영일 씨가 선정됐다. 박씨는 수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17년 친환경농업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노지재배 방식을 통한 유기농 고추 생산에 성공했다. 이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가 제조한 효소제와 영양제로 고추는 물론 배추, 무, 대파 등 다양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 KT 사랑의 봉사단, 정월대보름 봉사활동

KT 전남전북광역본부 사랑의 봉사단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문화 청소년과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세시풍속 체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진)

KT 사랑의 봉사단은 고려인 마을 청소년문화센터를 찾아 대보름 전통놀이와 의미를 설명하고 '부럼깨기' 풍습을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해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부럼을 깨물며 한 해 동안의 부스럼을 예방하고 치아와 건강을 기원했다. 또 요리강사를 초빙해 부럼을 활용한 '부럼 강정 만들기' 체험도 병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중도입국청소년과 KT 노사가 지원하는 '랜선 한글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함께했다.

이천영 고려인 마을 대표는 "오늘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고려인 마을 청소년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소영 기자